

## 찬송하는 자

역대상 9:33,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본문은 아마 다윗 시대에 레위 족장들이 찬송하는 일에 전념했음을 증거한다(19, 21, 23절; 성막이 있던 때). 그들은 골방에 거하여 밤낮으로 찬송의 직분에 전념하였고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신구약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찬송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복습해보자.

### 찬송은 하나님의 뜻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다. 이사야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에베소서 1:4-6, 11-12, 13-14,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시편 33:1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라고 말했다. 누가 의인이며 누가 정직한 자인가? 의인과 정직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공훈을 의지하고 그의 계명대로 살고자 애쓰는 자이다. 곧 오늘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 성도들이 그러하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이다.

요한계시록 14:3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의 보좌와 네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광경을 보았는데, 그 노래는 땅에서 구속(救贖)함을 받은 14만 4천명의 사람들 외에는 능히 배울 자가 없는 노래이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 찬송은 믿음으로 해야

둘째로, 찬송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무를 행하게 하셨다. 레위인들은 세속적 직업을 갖지 않고 성막과 성전의 봉사의 일들을 하는 자들이었다. 그들 중에서 찬양대원들을 뽑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행하게 하셨다. 오늘 본문도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고 증거하였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구별하신 자들이었다. 민수기 3:12,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태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모든 사람이 다 창조자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고 그 중에도 레위 지파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한다는 것은 복된 일이다. 레위 지파 고라 자손이 쓴 시편 84편에서 저자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했다(시 84:10). 레위인은 늘 성전 봉사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 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경건한 자들이 될 가능성이 많았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지파이었다.

이와 같이, 찬송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19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말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이 없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참된 찬송을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 찬송은 아름답게 불러야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되 아름답게 불러야 한다. 시편 96:9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라고 말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을 구하며 노래해

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우리는 결코 경박하게 노래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아름답게,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찬송해야 한다.

오늘 읽은 본문은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고 말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기 위해 많이 연습했음을 암시한다.

우리는 고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세상 노래를 부르는 성악가들이나 가수들도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좋은 노래를 부르기 위해 많은 연습을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소리는 좋은 악기와 같다. 그러나 좋은 악기라도 잘 연주하지 않으면 좋은 소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잘 훈련하여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또 좋은 노래에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있고 거기에는 정확한 음정과 적당한 박자와 화음이 있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노래하려면 음정이 정확해야 아름답다. 음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아름답지 못하다. 또 아름다운 멜로디는 박자도 적당하고 일정해야 안정적이고 아름답다. 박자가 너무 빠르다든지 혹은 너무 느려도 아름답지 못하다. 대체로 멜로디에 맞는 적당한 박자의 빠르기가 있다. 또 박자에는 어떤 규칙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4박자 혹은 3박자라고 말한다. 그 박자의 규칙성이 깨뜨려지면 역시 음악의 안정성이 깨어진다.

또 좋은 노래에는 아름다운 화음이 있다. 화음은 서로 다른 음정이 아름답게 조화되는 것이다. 도미솔 세 음을 동시에 내어보면, 한 음처럼 들린다. 그것을 음악에서는 1도 화음이라고 부른다. 파라도 세 음이나 솔시레 세 음도 한 음처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그것

을 각각 4도 화음, 5도 화음이라고 부른다. 좋은 멜로디에 적당한 화음을 곁들이면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올려야 한다.

하나님께 올리는 아름다운 찬송은 단지 아름다운 곡만 의미하지 않는다. 찬송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찬송의 가사는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정과 감사의 내용이 없는 찬송은 찬송이 아니다. 바른 내용이 없는 노래는 찬송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노래일 뿐이다.

현대음악의 문제점은 음악의 안정성과 아름다움을 훼손시키는 데 있다. 현대음악의 특징은 록 음악이다. 그것은 쿵쿵작작 대는 반복된 비트를 가진 음악이다. 또 거기에 불안정적인 박자와 또 과도한 크기의 소리가 있다. 그것은 사람의 감정을 흥분시키고 격화시킨다. 그것은 록 음악의 매력이며 또한 문제점이다. 그것은 육신적 음악이 될 수는 있지만 경건한 찬송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는 얼마나 세상적이어도 팬츠을까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생각해야 한다. 빌립보서 1:10은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하였다.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야 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찬양대나 찬양대원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힘써야 할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와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 믿음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또 우리는 잘 연습하여 고운 목소리와 아름다운 음정과 박자와 화음으로, 또 바른 가사로 찬송해야 한다.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